

어떤 씨앗

4.3 70주년을 맞아 7일의 큰곳에 방문하신 희생자 유족분들의 사진을 찍어드리는 옛날사진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사진관은 유족분들의 사진을 찍어서 인화하여 보내드리는 7일간의 프로젝트입니다. 유족분들의 성함과 연락처 주소지 그리고 돌아가신 고인에게 보내는 짧은 메시지를 화이트보드에 적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사진은 유족분들께 기념선물이 되기도 하지만 메시지와 함께 엮어 얼굴을 담은 책으로 출판됩니다. 저는 그 보름간의 경험을 찍은 영상물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작업인 '고사리 70년'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만난 4.3 유족분들의 고인에 대한 증언, 박정근 사진작가의 유족사진작업, 그리고 백현일 밴드의 '고사리 장마' 노래를 엮어 만들었습니다.

또한 옛날사진관에서 일하면서 4.3을 안다는 것 그 이상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주로 오셨는데 돌아가신 고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쓸 때는 머뭇머뭇 쉽게 적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평생 불러본 적이 없어 메시지를 쓰기가 쑥스럽다는 분도 계셨고, 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지만 얼굴도 모른다는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데 얼굴을 몰라서 못 본다며 해맑게 웃어 보이던 표정이 기억납니다.

나는 유족분들의 얼굴을 한분 한분 그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굴을 10장쯤 그리고 나니 문득 동료작가가 했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경험하게 된 것처럼 4.3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동지가 되어 참여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옛날사진관으로부터 시작하여 예기치 않게 여러 작업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친구들과 유족분들의 얼굴을 그린다라는 것은 어떤 씨앗을 심는 일처럼 되지 않을까요? 김준환, Michael Evans, 박종호 그리고 나, 4인의 화가는 4.3 유족분들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옛날사진관 당시 박정근 사진작가가 기록한 유족의 초상사진, 그분들이 직접 쓰신 돌아가신 고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토대로 약 250명의 얼굴을 그릴 것 입니다.

예전엔 막연히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학살의 아픔이나 슬픔이 희미해질 시간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 4.3의 희생자 즉 그 당시의 죽음들에 대한 분노에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4.3은 죽은 자의 빈자리, 그로인한 가난의 고통, 하소연 할 수 없는 억울함을 등에 지고 살아온 유족분들의 삶에 남아있었습니다. 폭력의 광기가 지나간 자리에 그래도 고사리 피듯 그 당시 찍은 사진을 보면 표정들이 참 예쁘다고 느껴졌습니다.

비극에 짓이겨지지 않고 살아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존경한다고 말씀드립니다.